

## 유대교와의 갈등에 대한 마태복음의 신학적 전략

-예수탄생단락(1-2장)을 중심으로-

김주환\*

### 1. 들어가는 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족보로 시작하여 예수의 유아기 시절의 일들로 복음서를 시작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족보는 한 사람의 기원, 특별히 인종적, 혈통적 기원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 역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의 족보에서는 다양한 인물의 탄생을 특정한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몇 인물들에 대한 기록에서는 이 패턴으로부터 이탈하는 요소가 존재하며 예수의 탄생에서 이탈요소가 두드러진다. 이탈 요소라 함은 1장 16절에서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족보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아버지가 낳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는 아버지가 낳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머니가 낳은 것인가? 16절을 살펴보면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마리아가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으로도 묘사하지 않는다.

---

\* 총회신학대학원 강사, 구약학

본고는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 일정한 패턴으로부터 이탈하는 요소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탈요소가 복음서 내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살핀 후 예수탄생단락 속에서 묘사되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누가복음의 탄생단락과 비교했을 때, 요셉이라는 인물이 부각되는 듯 보이고 마리아는 축소되는 듯 보인다. 본고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탄생단락을 통해서 예수의 부모에 대한 마태의 묘사가 암니아 회의 전후로 시작된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의 상황이 가져온 사회적, 신학적 이유로 보고 이를 논증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마태의 전략임을 밝히려고 한다.

## 2. 예수탄생단락 속에서의 요셉과 마리아

마태가 기록한 탄생단락에서 등장하는 주된 인물은 요셉과 마리아이다. 일반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부모라는 특수한 존재로 인식된다. 특별히 요셉의 경우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탄생단락에서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역할을 묘사하는 긴 분량만큼이나 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태는 요셉을 비롯하여 마리아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기록한 탄생단락에서 두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마태가 요셉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을 살펴보면 요셉은 족보 속에서도 언급되고(1:16), 또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1:18-2:23), 마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입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마태의 의도는 먼저 예수의 족보에서 드러난다. 마태는 예수의 족보 속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킨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마리아가 바로 예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이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았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이방선교를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이 모두 이방사람이거나, 이방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 가운데 오버만(J. Andrew Overman)은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마태가 이해한 이스라엘 속으로 이방인들이 연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주장한다.<sup>1)</sup> 슈바이쩌는 예수의 족보에서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며, 이방여인들의 등장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암시한다고 한다.<sup>2)</sup> 또 다른 학자들은 마태가 예수의 족보 속에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여인들에 대한 주목이라기보다는 이 여인들이 등장했던 구약성서의 내용과 그 배경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휴치슨(John C. Hutchison)이 대표적이다. 휴치슨은 여인들과 관련된 구약의 이야기 또한 그 남편들의 신앙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학자들의 견해는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여인들의 배경이 가지는 공통점보다는 여인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의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공식은

- 1) J. Andrew Overman, *Church and Community in Cris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32.
- 2) E. 슈바이쩌, 『마태오복음』한국신학연구소 역, 국제성서주석 vol. 29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E. Schweizer,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Göttingen : Bandenhoeck & Ruprecht, 1959]), 28.
- 3) John C. Hutchison, "Women, gentiles, and the messianic mission in Matthew's genealogy," *Bibliotheca sacra* 630 (2001), 160. 또한 렘쉴스키(Boris Repschinski)는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구약성서에서는 이방인으로 등장하지만, 마태의 족보에서 그들의 민족성은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Boris Repschinski,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a christology for Christian Jew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8 (2006), 252.

여인들이 가지는 구약성서의 배경이나 민족적인 배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공통점이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000(남편) 은 000(아내) 에게서 000을 낳았다(1:3, 5, 6).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후손을 낳은 주체는 여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남편들이었다. 즉 유다와 살몬과 보아스와 다윗이 ‘여인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낳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여인들이 누구를 낳은 주체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족보 상 마지막 여인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은 족보에서 기록된 다른 여인들에 대한 표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앞서 말했듯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은 하나의 공식, 즉 ‘000 은 000 에게서 000 을 낳았다.’는 공식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등장하는 구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16).”고 기록하고 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식인 ‘000 은 000 에게서 000을 낳았다.’는 공식이 마리아에게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프랜스(R. T. France)가 지적한 부분이다. 그는 “마태가 그의 공식을 버렸지만, 18절부터 어떻게 예수가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설명한다.<sup>4)</sup> 그러나 그의 설명은 예수가 어떻게 요셉의 가문에 받아들여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마태가 마리아에게서 변경한 공식이 마태복음 내에서, 또 예수탄생단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일관성을 가지도록 의도하였다면, 더욱이 예수가 두 말할 나위 없이 요셉의 아들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는 동일한 공식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

4)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 2007), 47.

마태는 그 공식을 깨뜨리고, 족보의 일관성을 흐려놓고 있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의 족보는 마태의 의도를 나타내는 장치다. 족보에서 여인들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후손을 낳은 주체는 여인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낳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후손을 낳은 주체는 예수의 등장과 함께 불확실해진다. 그것은 남편인 요셉도 아니고, 여인인 마리아도 아니다. 마태는 “아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문장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는 문장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에 있어 요셉의 역할을 모호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과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렇다면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의 족보 자체에서 요셉의 역할은 모호해진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의 탄생 그 자체에 있어는 요셉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OOO 은 OOO 에게서 OOO을 낳았다.”는 공식이 깨뜨려 졌을 뿐만 아니라, 1장 20절에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족보와 탄생단락에서 요셉을 중심적 인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를 든다. 존스(Gareth L. Jones)는 1세기에 존재했던 유대인들의 민간전설들과 예수탄생단락의 유사성을 지적하는데, 특별히 모세의 탄생과 유아기의 일들에 대한 1세기의 해석자들의 전승과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에서 모세의 아버지인 아브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예수탄생단락에서 요셉의 역할이 아브람의 역할과 유사하므로, 예수탄생단락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이다.<sup>5)</sup> 그러나 예수의 ‘탄생’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과 예수의 ‘유아기의

5) Gareth L. Jones, “Jewish folklore in Matthew’s infancy stories,” *Modern Believing* 52 (4, 2011), 18-21. 이와 유사한 연구는 Arland J. Hultgren이 있다. Arland J. Hultgren, “Matthew’s Infancy Narrative and the Nativity of an Emerging Community,”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19 (1997), 92-95.

사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앞서 예수의 탄생 공식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족보에 드러난 예수의 탄생 자체에 있어서는 요셉이 격리된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학자들이 족보에 드러난 특징을 도외시한 채, 예수탄생단락만을 보고 예수의 탄생에 있어 요셉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예수의 유아기의 사건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길게 기록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1장 18-25절을 살펴보면, 마태가 예수의 탄생에 있어 요셉의 역할을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는 하나, 2장까지 요셉은 주요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즉 마태는 족보에서 요셉이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의 유아기 사건에 있어 그 역할을 소극적이거나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요셉을 무시하지 않되, 그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마태의 전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요셉의 역할을 기록하되, 그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마태의 의도는 요셉에 대한 묘사 전반에서 드러난다. 1장 19절을 보면,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기록한다. 이 구절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의 탄생에 있어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주어지는 칭찬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19절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가진 ‘의’가 예수와 관련된 ‘의’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워진다.<sup>6)</sup> 그 이유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짧은 구절 후에 이어지는 요셉의 행동에 관한 묘사 때문이다. 마태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했다고 기록한다(1:19b). 이 구절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구절 직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요셉의 ‘의’는 예수의 탄생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마태가 요셉의 ‘의’를 강조하기를 원했다면, 천사의 지시가 끝이 나는 23절과 24절 사이에 위치시

6) 본고에서 “요셉이 가진 의”와 “예수와 관련된 의”를 구분하는 것은 요셉이 가진 의가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예수와 관련이 없는 의는 유대교전통에 근거한 율법적인 의임을 말하기 위함이다.

김으로써 천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식의 자연스러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구절 직후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했다고 기록함으로써, 그의 의가 예수의 탄생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16절과 19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불리는데, 마리아는 그의 남편과 동침함이 없이 임신을 한 것이므로(18절), 요셉은 마리아가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만약 요셉의 의가 ‘올법적인 의’였다면,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의 간음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본문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가만히 “꿇고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요셉에 대한 마태의 묘사 속에 기록된 ‘의’는 올법적인 의도<sup>7)</sup>, 예수와 관련된 의도 아닌, 모호한 형태의 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8)</sup>

요셉의 의가 올법적인 의라는 견해는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된 바가 있다. 엘리스(Dale C. Allison, Jr)은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와 이혼을 결심한 것에서 드러난다고 하며, 그것이 올법적인 의라고 주장한다.<sup>9)</sup> 엘리스의 견해 가운데 요셉이 의롭다는 표현이 올법적인 의임을 드러낸다는 것이 가지는 문제<sup>10)</sup>를 뒤로하더라도 엘리스가 요셉의 이야기와 19장 12절에 기록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와 연결시켜 마태복음서 내에서 예수의 동생들이 등장한다는 점과 충돌하기 때문에 엘리스의 논리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브라운의 경우도 요셉의 의가 올법적인 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요셉이 예수탄생당락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된다고 주장하며,

7) 만약 요셉의 의가 올법적인 의였다면, 요셉은 자신이 간음했다고 간주한 마리아를 고발하여 죽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레위기 20장 10절을 참조하라.

8) 헤딩턴은 요셉이 “가만히 꿇고자” 한 이유에 대해서, 요셉의 의가 올법적인 의이지만, 마리아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한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Daniel J. Harrington, S.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7), 34-37.

9) Dale C. Allison, Jr, “Divorce, Celibacy and Joseph (Matthew 1:18-25 and 19:1-1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9 (1993), 4.

10) 엘리스의 주장과 같이 요셉의 의로움이 올법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요셉은 이혼을 결심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죽였어야 한다. 레위기 20장 10절 참조.

그 이유를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1)</sup> 하지만 브라운은 예수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꿈을 통한 지시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요셉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하고 있다. 브라운의 해석과 같이 요셉의 이 이야기에서 영웅적인 인물인가? 하는 질문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본문 상에서 요셉이 “가만히 꿇고자” 한 것 이외에 요셉 스스로의 능동적인 말이나 행동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셉의 ‘의’가 율법적인 것이라면, 그는 꿈을 통하여 천사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생각(20절)”을 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요셉은 이후의 사건들에 있어 철저하게 천사의 지시에 종속된 사람으로 묘사된다.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꿈으로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2:13-14). 또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도 꿈으로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2:19-21). 요셉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갔지만 이것조차 꿈으로 지시를 받았으며(2:22), 이는 철저히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기록하면서 요셉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미묘한 차이는 중요한데, 결국 유아기 사건 속에서 예수의 이동과 나사렛 정착의 모든 일들이 요셉의 결단과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요셉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 많이 언급된다는 주장으로 요셉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이 언급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는 예수의 삶의 여정들을 그리는데 있어 필요한 수단이거나 예수의 유아기의 사건들에 있어 요셉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어 기록하되 적극적인 부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허용과 필요에 따른 활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마리아의 경우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탄생에 있어 역할이 축소된

---

11) Raymond E. Brown, “The annunciation of Joseph (Matt 1:18-25),” *Worship* 61 (1987), 485-486.

다.<sup>12)</sup> 마태복음의 탄생단락에서는 마리아가 행동의 주체로 기록된 부분이 없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수태고지를 들은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다(1:20). 또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 역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다(1:20-23, 2:13, 19, 22). 이러한 사실들은 마태복음의 탄생단락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다.<sup>13)</sup>

### 3. 예수탄생단락과 마태 당시 기독교의 정체성

마태복음은 기독교 내부에 유대교로부터 전향한 랍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서중석은 마태복음을 해석하며 마태공동체가 학문공동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서중석은 23장 8절이 마태공동체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며, 그 분위기는 서로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13장 52절에 언급된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된 율법학자”는 기독교 율법학자이며, 이는 “마태공동체의 전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sup>14)</sup> 또한 서중석은 마태공동체의 위치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마태복음이 “암니아의 법령에 대한 하나의 대응”임을 밝힌 데이비스

12) 누가복음과의 비교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를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인물은 마리아이다(눅1:26-37). 또한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인물도 마리아이다(눅1:38). 이 외에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고,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함으로써 마리아의 특수한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눅1:39-45). 또 마리아가 부른 찬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눅1:46-55).

13) 본고에서 마태가 암시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에 있어 직접적인 평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태가 요셉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예수의 탄생과 요셉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설명을 추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6-130.

의 견해는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하나의 공헌이라고 평가하였다.<sup>15)</sup>

암니아 회의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이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문(Birkath ha-Minnim)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서 암니아 회의 이후 유대교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알려진다.<sup>16)</sup> 물론 마태복음의 기록시기가 암니아 회의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마태복음이 암니아 회의로부터 시작된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내에서 예수와 가장 열띤 논쟁을 한 유대교 그룹은 바리새파로 묘사되어 있어, 암니아 회의 이전부터 마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와 논쟁 상황 속에 있었거나, 그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슈바이쩌는 마태가 바리새파를 향한 공격적인 메시지를 기록하면서도,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기록(23:3)을 남겨두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지만 마태가 유대인들의 회개를 기대할 만큼 ‘결정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7)</sup> 그러나 슈바이쩌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에스쿠(Richard S. Ascough)는 마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 공동체와 라이벌 관계 속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마태복음에서 예수와 회당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장면이 마태공동체와 굉장히 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나 에스쿠는 마태복음에서 “친족”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본문들은 마태가 친족에 근거한 관계를 가진 공동

15) Ibid., 114-115.

16) L. Michael White, *From Jesus to Christianity*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2004), 228-229.

17) E. 슈바이쩌, 『마태오복음』, 20.

18) Richard S. Ascough, “Matthew and community formation,” in *Gospel of Matthew in current study*, ed. David E. Aune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Co., 2001), 102-103.

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가 예로 든 본문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10장 16-39절이다. 그러나 그는 10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박해의 상황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당하는 박해라고 함으로써 논리의 모순을 보여준다.<sup>19)</sup> 서중석은 마태 자신이 기독교로 전향한 율법 학자였으며, 마태공동체가 유대인들의 비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sup>20)</sup> 서중석의 견해는 마태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회당으로부터 축출을 당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 즉 기독교 공동체 내에 전향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존재했다는 것은, 곧 그들의 뿌리로부터 자신들을 절연할 수 없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양한 구절들은 일부 유대교로부터 전향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마태 역시 그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21)</sup> 23장 8절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는 구절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서로 랍비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서중석의 견해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율법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sup>22)</sup> 유대교로부터 전향한 복수의 율법학자들의 존재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축출을 당한 것이 기독교 스스로의 동의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태와 당시 기독교

19) Ibid., 108-109.

20) 서중석, 『복음서해석』, 130.

21)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 가르치는 자로서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태 자신이 가진 가르침과 관련된 관습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 A. 버릿지, 『복음서와 만나다: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손승우 역 (서울: 비아, 2017)[Richard A. Burridge, *Four Gospels, one Jesus: A Symbolic Reading* Grand Rapids, Michigan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144-156.

22) 서중석, 『복음서해석』, 126.

공동체에 속한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고나 관습 속에서 유대교와 그들의 사고, 관습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이러한 상황은 복음서의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서중석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율법해석의 경우, 예수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는 다른 율법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데,<sup>23)</sup> 이는 공동체 내에서 증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극단적으로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sup>24)</sup> 마태를 비롯한 전향한 율법학자들이 유대교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극단적으로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율법이나 유대전통과 완전히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계시된 전통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sup>25)</sup>

이를 위해서 마태는 그것이 각기 다른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5장 18절에서 예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하면서도, 소위 산상수훈을 통하여 “옛 사람”과 “나(예수)”를 대립명제로 설정하여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다.<sup>26)</sup> 마태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 존재한 혈통에 따른 그룹,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 유대교와의 단절, 그리고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은 기독교의 한 그룹이면서도 혈통을 버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또 다른 그룹인 이방인들에게

23) 버릿지는 마태가 예수를 또 다른 모세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A. 버릿지, 『복음서와 만나다』, 134-144.

24) Ibid., 143-144.

25) 본고에서 표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가지는데,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26) 서중석은 예수가 제시하는 새로운 율법이 이혼, 맹세, 복수, 사랑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Ibid., 143.

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마태는 이제 유대교라는 하나의 혈통 체계가 아니라,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신앙 체계를 통하여 그들이 혈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준다.<sup>27)</sup>

당시 유대교로부터의 꺾박과 단절이라는 정황과 마태의 태도는 예수탄생 단락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힌트를 제공한다. 마태는 예수탄생 단락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족보를 함께 기록하였다.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존재한 기독교 공동체, 특히 마태복음서의 첫 독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태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의 전통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한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태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한다. 이는 여전히 스스로를 유대교 내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마태는 기독교 공동체가 혈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27) 마태가 자신의 공동체를 ‘진정한 유대인’으로 보았다는 주장은 리치스(John K. Riches)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마태가 자신이 공동체를 특별한 유대교의 버전으로 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John K. Riches, *Conflicting mythologies : identity formation in the Gospels of Mark and Matthew* (Edinburgh : T & T Clark, 2000), 214.

28) 휴젠가는 1장 1절에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은 두 직함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의 유비를 통하여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는 유비를 통한 대입을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만 그의 주장 가운데 일부 설득력이 있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유대교적인 사고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즉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메시아는 결코 순교자의 길로 가지 않지만, 예수는 메시아이자 십자가를 진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통합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Leroy A. Huizenga, “Matt 1:1: “Son of Abraham” as a christological category,”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0 (2008), 106-109.

인 공동체'임을 암시하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족보와 탄생단락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수동적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sup>29)</sup>, 입지를 줄인 것 역시 혈통을 넘어선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sup>30)</sup> 1장 16절에서 마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고 기록하면서도, 요셉의 역할이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단절되어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하며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린다(1:20).<sup>31)</sup> 또한 예수의 유아기 사건들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요셉 역시 그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자의 지시에 따르고 있으며, 말씀 혹은 예언을 이루어림이라고 기록한다. 이는 그 자신이 전향한 율법학자였던 마태 자신의 입장과

29) E. 슈바이처, 『마태오복음』, 29. 도날드 헤그너, 『마태복음 (상)』 WBC 성경주석, 33A (서울: 솔로몬, 1999[Donald Alfred Hagner, *Matthew*, Word Biblical Commentary, 33 (Dallas, Tex.: Word Books, 1993)]), 102.

30) 에릭슨은 예수탄생단락에 관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는데,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게까지 소급시킨 것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관심을 결여함과 동시에, 예수의 ‘유대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글의 앞부분에서 “메이사의 탄생의 생물학적인 과정으로부터 요셉을 제외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탄생공식을 깨뜨린다.” 고 주장했는데, 요셉을 제외한 예수의 탄생은 예수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 Richard J. Erickson, “Joseph and the birth of Isaac in Matthew 1,”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0 (1, 2000), 39-41. 킹스베리는 1-2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예수, 임마누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예수탄생단락에서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은 채 자신의 논지를 이끌고 간다는 한계를 가진다. Jack D. Kingsbury, “The Birth Narrative of Matthew,” in *Gospel of Matthew in current study*, ed. David E. Aune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Co., 2001), 159-160.

31) 일부 학자는 예수탄생비유에서 마리아의 수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장에서 요셉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반면, 마리아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의 어머니’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런 논리는 예수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2장에서는 예수의 이름도 불리지 않고, “아기”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Raymond E. Brown, ed., *Mary in the New Testament : a collaborative assessment by Protestant and Roman Catholic scholars* (New York: Paulist Press, 1978), 74-76.

더불어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구성원이 존재했던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종속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가진 공동체임을 강조하려 한 의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 4. 마태의 신학적 전략

마태복음은 예수는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으로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마태의 신학과 기독교 공동체의 정황을 반영한다. 구제홍은 예수탄생단락에 묘사된 요셉의 모습은 마태복음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요셉의 모습은 마리아의 임신과 예수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사지를 통하여 전해 듣고 이해하기 전과 이해한 후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묘사되며, 이는 “마태공동체의 영성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sup>32)</sup> 구제홍의 견해가 ‘이해’를 중심으로 요셉의 행위를 이해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것은 예수탄생단락을 이해하는데 일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들을 생각해볼 때, 유대교로부 박해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마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수탄생단락을 기록했다는 주장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sup>33)</sup>

32) 구제홍, “집주인 비유와 마태공동체,” 『예수의 비유』, 구제홍, 김선정 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7.

33) 서중석은 마태공동체 내에서 유대교적 기독교인 그룹과 이방 기독교인 그룹 사이의 대립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것은 ‘예수의 새로운 율법’ 제시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바리새적 해석에 대한 예수의 해석의 철저한 우위를 주장하는 멤버들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적 해석을 “부모”가 상징하는 유대교적 전통이라고 본다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에 철저히 종속적인 것은 예수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치와 말리나(John J. Pilch, Bruce J. Malina)는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전통들은 개별적인 가족과 전체로서의 국가, 즉 가족을 대규모로 복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에 다같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며, “전통은 부모와 유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sup>34)</sup> 부모가 전통과 유비를 이룬다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모들에 대한 부분들이 유대교의 전통과 유비를 이룬다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들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16-17절에서 발견되는데,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의 설명이 이어진다. 헤링턴(Daniel J. Harrington)은 이 구절들이 당시 공동체 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베드로에게까지 소급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고 하였고<sup>35)</sup>, 프랜스(R.T. France)는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으며, 이는 17절에서 언급되는 “혈육”과는 대조적인 사상을 나타낸다고 기술한다.<sup>36)</sup>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혈육 사이의 대조가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본문에서 예수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 예수가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직후에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인 “요나”를 언급함과 동시에, “혈육”과 그의 고백 사이의 단절을 지적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버지’나 ‘혈육’이 상징하는 전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서중석, 『복음서해석』, 147-148.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구절들은 4:22, 10:34-39, 12:46-50, 22:41-46 등이 있다.

34) 존 J. 필치, 브루스 J. 말리나, 『성서 언어의 사회적 의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John J. Pilch, Bruce J. Malina, *Handbook of biblical social values*, Peabody, Mass.: Hendrickson, 1993 ]), 137-138.

35) Daniel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tthew*, 251.

36) R.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619.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유대교 전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행위들이 결국 구약성서의 성취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에, 그 자신의 공동체를 유대전통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 “히늘에 계신” 예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더 우위에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마태는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존재한 경쟁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sup>37)</sup>

또한 마태복음 10장 34-39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짐을 주러 왔다고 한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35-36절).

조경철은 예수가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구절들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sup>38)</sup> 그러나 이 구절들을 소위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시 기독교 공동체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진 본문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되 자신의 독자의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인데, 마태가 종말론적인 의도만으로 해당 구절을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의 문제에 대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반면 헤그너(Donald A. Hagner)는 이 본문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겪게 될 불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37) 양용의는 토라의 성취로서의 예수와 완성되지 않았다는 종말론적 기대 사이에서 긴장관계가 나타나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것으로서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기에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제자들이 가진 더 나은 의는 곧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교 전통과 비교하여 제자들과 기독교 공동체의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양용의, “마태복음과 토라,” *Canon&Culture* 5 (2011), 69-72.

38) 조경철, 『마태복음1』,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vol. 31-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43-446.

데, 특별히 가족관계 속에서 벌어질 불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구약성서와 유대교 전통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가장 존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9)</sup>

헤그너의 해석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유대교 전통 사이의 긴장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지만, 이 긴장관계를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 구절들 속에서 언급하는 불화는 ‘앞으로’ 겪게 될 일들로 묘사되지만, 마태의 관점에서 그것은 ‘현재’의 것으로 자신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불화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등의 언급이 실제 가족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부모가 상징하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유대교(혹은 유대교의 전통)와 긴장관계 속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41-46절에 기록된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5절). 예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바로잡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적인 조상인 다윗이 “주”라고 부른 존재라는 것이다.<sup>40)</sup> 키너는 예수의 발언이 구약과 유대교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며, 예수의 주요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무력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다는 사실이 본문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sup>41)</sup> 슈바이저는 이 본문이 “예수의 다윗 혈통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기”를 반영한다고 해석

39)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3A (Dallas, Tex.: Word Books, 1993), 291-293.

40) 김영봉, 『마태복음2』,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vol. 3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05.

41)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1999), 533-534,

한다.<sup>42)</sup> 그러나 그의 견해는 하나의 저작으로서의 마태복음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헤그너는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주”라는 단어는 마태와 그의 공동체에서 고백된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하는데<sup>43)</sup>, 그가 이 구절들을 마태와 그의 공동체와 연관시켜 해석한 점에 있어서는 일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헤그너의 해석과 같이 이 본문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을 포함한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그룹, 즉 유대교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룹의 주장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두 입장 모두를 자신의 복음서에 포함시키되, 단계적으로 유대교의 전통보다 우위에 있는 자신들의 전통을 제시하며, 외적으로 긴장관계 속에 있는 유대교의 논리보다 우위에 서려고 했다.<sup>44)</sup> 또한 마태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수의 탄생을 구원과 연관시키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1:21), 혈통에 근거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보다는 예수를 통하여 형성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과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42) E. 슈바이저, 『마태오복음』, 450.

43) Donald A. Hagner, *Matthew 14-28*,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3B (Dallas, Tex.: Word Books, 1995), 1011.

44) 이강택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펼친다. 특히 예수의 유아기를 묘사하고 있는 1-2장 역시 “예수 안에서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총괄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강택,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 마태복음의 율법,” *Canon&Culture* 6 (2012), 173-175.

## 5. 나가는 말

마태는 예수탄생단락을 통하여 크게는 두 가지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얌니아 회의 전후로 본격화 된 유대교와의 갈등의 관계와 관련된다. 첫 번째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보다 우월한 전통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는 유대교와의 갈등으로 비롯된 기독교 공동체 내부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마태는 이를 위해서 소위 ‘부모’로 상징되는 유대교전통보다는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자신들의 전통과 고백이 더 우위에 있는 것임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하여 복음서에 서두에 있는 탄생단락에서 예수의 부모를 상대적으로 소극적 존재로 묘사한다. 또한 자신의 복음서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과 믿음이 전적으로 유대교 전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전통과 고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마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독교 공동체에게 심어줌으로써, 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 <주요어>

예수탄생단락, 기독교 공동체, 유대교, 전통, 하나님의 백성

### <Key Words>

The Birth Narrative, Christian community, Judaism, Tradition, God's people

\* 접수일 2019년 1월 25일, 수정일 2019년 3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3월 16일

## 참고문헌

- 구제홍, “집주인 비유와 마태공동체,” 『예수의 비유』, 구제홍, 김선정 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김영봉, 『마태복음2』,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vol. 3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버릿지, 리처드 A., 『복음서와 만나다: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 손승우 역, 서울: 비아, 2017[Richard A. Burrige, *Four Gospels, one Jesus: A Symbolic Reading*, Grand Rapids, Michigan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양용의, “마태복음과 토라,” *Canon&Culture* 5 (2011), 37-79.
- 이강택,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 마태복음의 율법,” *Canon&Culture* 6 (2012), 153-192.
- 조경철, 『마태복음1』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vol. 31-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슈바이저, E., 『마태오복음』 한국신학연구소 역, 국제성서주석 vol. 29,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Schweizer, E.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Göttingen : Bandenhoeck & Ruprecht, 1959].
- 필치, 존 J., 말리나, 브루스 J., 『성서 언어의 사회적 의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ilch, John J. Malina, Bruce J. *Handbook of biblical social values*, Peabody, Mass.: Hendrickson, 1993]
- Allison, Jr, Dale C., “Divorce, Celibacy and Joseph (Matthew 1:18-25 and 19:1-1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9 (1993), 3-10.
- Ascough, Richard S., “Matthew and community formation,” in *Gospel of Matthew in current study*, edited by David E. Aune,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Co., 2001.
- Brown, Raymond E., ed., *Mary in the New Testament: a collaborative assessment by Protestant and Roman Catholic scholars*, New York: Paulist

- Press, 1978.
- Brown, Raymond E., "The annunciation of Joseph (Matt 1:18-25)," *Worship* 61 (1987), 482-492.
- Erickson, Richard J., "Joseph and the birth of Isaac in Matthew 1,"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0 (2000), 35-51.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 2007.
- Hagner, Donald A., *Matthew 1-13*,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3A, Dallas, Tex.: Word Books, 1993.
- Hagner, Donald A., *Matthew 14-28*,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3B, Dallas, Tex.: Word Books, 1995.
- Harrington, Daniel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7.
- Huizenga, Leroy A., "Matt 1:1: "Son of Abraham" as a christological category,"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0 (2008), 103-113.
- Hultgren, Arland J., "Matthew's Infancy Narrative and the Nativity of an Emerging Community,"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19 (1997), 91-108.
- Hutchison, John C., "Women, gentiles, and the messianic mission in Matthew's genealogy," *Bibliotheca sacra* (2001), 152-164.
- Jones, Gareth L., "Jewish folklore in Matthew's infancy stories," *Modern Believing* 52 (2011), 14-23.
- Keener, Craig S.,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1999,
- Kingsbury, Jack D., "The Birth Narrative of Matthew," in *Gospel of Matthew in current study*, edited, David E. Aune,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Co., 2001.
- Overman, J. Andrew, *Church and Community in Cris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 Repschinski, Bori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a christology for Christian Jew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8 (2006), 248-267.

Riches, John K., *Conflicting mythologies : identity formation in the Gospels of Mark and Matthew*, Edinburgh : T & T Clark, 2000.

White, L. Michael, *From Jesus to Christianity*,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2004.

<초록>

## 유대교와의 갈등에 대한 마태복음의 신학적 전략

-예수탄생단락(1-2장)을 중심으로-

김주환

(총회신학대학원 강사)

마태복음에 기록된 소위 “예수탄생단락”의 목적 중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는 예수탄생단락에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되, 주체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능동적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종속되고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예수탄생단락에서 예수의 부모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역시 복음서 전반에서 발견된다. 이는 부모가 상징하는 유대교 전통과의 경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새로운 가르침이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마태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마태 자신을 포함하여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 전향한 율법학자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혈통적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태는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교 사이의 단절보다는 기독교 공동체의 우위를 주장하며,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고백은 유대교 전통을 뛰어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이 계시를 가진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한다.

<Abstract>

## The Theological Strategy of the Gospel of Matthew Conflict with Judaism: Focused on the Birth Narrative (Chapters 1-2)

Dr. Ju-Hwan Kim  
(Assembly of God Graduate Seminary School)

One of the purposes of the “Birth Narrative” in the Gospel of Matthew is to identify the Christian community. In this narrative, Matthew writes about the role of Jesus parents Joseph and Mary and describes them as subordinate and passive figures, rather than as entities that act actively and autonomously. Along with describing the role of Jesus’s parents as being passive in the narrative on the birth of Jesus, the negative perspective on the parents can be found acros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This overall negative perspective is to show that the new teaching of the Christian community that believes in Jesus is superior, when compared against the tradition of Judaism that the parents symbolize. However, Matthew does not depict Christianity as being completely severed from Judaism. This is because many were Christian community rabbis who had converted, including Matthew and many were Jewish by blood that they could not be ignored. Consequently, Matthew argued for the superiority of the Christian community rather than the sever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community and Judaism and claims that their tradition and confession have been bestowed by the Heavenly Father which surpasses the traditions of Judaism and that the Christian community, who believes are the true God’s people.